

본 사업의 취지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참여한 모든 기업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제안을 준비하셨습니다. 본 사업이 2차년도 사업이다보니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획에 중심을 두고 제안서를 작성하셨지만 각 제안기관마다의 차별성과 완성도는 많이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수행 능력 부분에서 현장 운영이라는 중요한 요소에 대하여 치밀한 준비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후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면밀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관리 부분은 각 제안기관이 차별점을 잘 보여주었으며 각 사의 콘셉트에 맞게 제안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각 사의 방안은 미흡함이 없었으며 오프라인에서의 유사시 대비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